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하기

##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웅장한 기독교 신학과 그 신학의 섬세한 실천을 가르쳐 온 에베소서가 결론에 이르러 천국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신학의 절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장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용두사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정에서의 세 가지 관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역할을 상세하게 다루며 신앙의 실재를 설명합니다.

그중 종들에게 권면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엡 6:8).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섬김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만일 종이 주인을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게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종을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종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주인을 은혜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인들에게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엡 6:9)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덧붙입니다. 바로 주인에게도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주인이든 종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다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은,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은 종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갑질’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가정에서 종을 두고 사는 분은 없겠지만,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직원이나 부하를 두신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여러분을 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무시하고 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도 대하신다고 인식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의 시선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



📖 텍스트와 콘텍스트

# 옷을 찢는 자, 말숨을 찢는 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렘 36:20-26)



김성진 담임목사

## 본문의 배경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며 유다를 위협했고, 유다는 이를 막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 금식령이 선포되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때부터 모든 나라에 대하여 주신 말숨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2절), 예레미야는 감금 중이었기에 그의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말숨을 기록했습니다. 바룩은 성전 뜰에서 그 심판의 말숨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서기관 미가야는 고관들과 방백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말숨을 들은 고관들은 놀라며 반드시 이 말을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BC 604년에 일어났으며, 예루살렘 멸망 때인 BC 586년보다 20년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의 위협을 설마 했지만, 하나님의 말숨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하나님의 경고, 왕의 거절

고관들과 방백들은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권한 후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야김이 과거 우리야 선지자를 살해했던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예레미야와 바룩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해 은신을 권한 것입니다. 우리야는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다 여호야김의 분노를 사서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왕은 그를 잡아와서 직접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22절에서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당시는 아홉째 달, 즉 12월이었고, 왕은 겨울 궁전에서 화로를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궁전은 창문이 적은 방으로, 화로 난방을 통해 겨울을 보냈다고 고고학자들은 보고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관들이 두루마리에 담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고하자, 여호야김은 신하 여후디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말숨에 대한 왕의 반응은 경악할 만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할 때마다 왕은 면도칼로 그 부분을 잘라내어 화롯불에 던져 태웠습니다(23절). 이것에 사용된 면도칼은 ‘서기관의 칼’입니다.

이 ‘서기관의 칼’은 필사하다가 잘못 기록된 말숨을 오

려내고 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는데, 여호야김은 그 칼을 하나님의 말숨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 읽는 구조였고, 읽은 부분은 말아 왼쪽으로 감아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서기관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숨을 서기관이 잘못 복사한 말숨인 것처럼 잘라내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숨에 대한 철저한 거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한 행위였습니다. 믿음 있는 방백들이 이를 말렸으나 왕은 끝까지 무시했고, 결국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왕은 말숨 앞에 옷을 찢고,  
다른 왕은 말숨을 찢어 불에 던져

하나님은 회개한 왕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숨을 거부한 왕은  
비참한 죽음 맞아

같은 말숨, 다른 반응-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비웃어

오늘도 말숨하시는 하나님  
말숨 앞에 선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두 왕, 두 길

성경은 여호야김을 소개할 때 “요시야의 아들”(1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아버지 요시야와 비교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의로운 왕 중 한 명으로, 하나님의 말숨 앞에 철저히 반응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하고, 사반은 다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숨을 듣자마자 두려움과 애통함으로 옷을 찢고 회개했으며, 하나님은 그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요시야 생전에는 심판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여호야김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숨을 전달 받았음에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요시야 때는 사반, 여호야김 때는 사반의 손자, 동일한 서기관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숨이 전달된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 동일한 메시지였지만, 그 말숨 앞에 반응한 두 왕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요시야는 말숨을 듣고 옷(마음)을 찢었고, 여호야김은 말숨을 찢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시야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생전에 재앙을 보지 않게 하셨지만, 여호야김은 말숨을 거역한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숨 앞에서의 태도가 두 왕과 그 시대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숨을 조롱하고 불태운 여호야김에게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30)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말숨은 죽음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까지도 철저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맞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버림을 당하여”라는 단어로, 이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숨 두루마리를 불에 “던졌다”고 할 때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샬라크’입니다. 말숨을 던진 자는 결국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숨을 경멸하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숨을 불쏘시개 삼은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따뜻함을 누리려 했던 그 몸조차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채 방치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호야김은 나귀처럼 끌려가서 매장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내던져지리라(렘 22:19)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내던져진다는 표현은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 특히 부정한 장소에 시체가 버려지는 일을 뜻합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자신이 비웃고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숨 앞에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말숨을 무시했고, 죽어서는 그 몸이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 끝내 저주받은 자로 버려졌습니다.

반면, 그가 불태우려 했던 하나님의 말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숨을,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기록하게 하였고, 그 말숨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말숨을 불태운 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말숨은 불멸하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그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동일한 심판의 말숨을 두 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렘 36:3).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심판의 말숨을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숨은 사랑과 회복의 말숨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숨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며 말숨을 조롱하고 태우는 패역을 저질렀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대가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맺음말

하나님의 말숨이 선포될 때 여호야김처럼 그 말숨을 내 삶의 불편함을 덮어 버리는 도구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숨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옷을 찢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여름성경학교 후기

## 유년부 찬양 가득!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 2학년 김하윤

여름성경학교에 가기 전부터 너무 기대됐어요. 찬양팀으로 서게 되었거든요. 연습 때부터 찬양과 율동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 내내 교회에 있을 생각에 신났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란 찬양에서 “살금살금 몰래몰래 내 맘 흔들 어 하나님을 잊게 만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의 말씀 기억해” 가가

장 기억에 남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도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만드니 더 재밌었어요. 큰 미끄럼틀을 타며 친구들과 물놀이하는 시간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



## 초등부 예수님 사랑으로 채운 나의 말씀 도시락



### 4학년 이은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하고, 언니들처럼 기도도 잘 하고 싶어서 여름성경학교를 늘 기대하며 기다리는 어린이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주제는 “예배를 회복해요”입니다.

둘째 날 토요일, 신나는 물놀이를 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난 뒤, 늦은 오후에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렸습니다. 전도사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말씀이 귀를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어요”라고 전하실 때, 꼭 예수님께서 저에게 “잠을 깨렴”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졸음도 확 달아났습니다. ‘졸음이 내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이며 ‘지금도 여름성경학교 예배 시간이야. 잠은 이따가 많이 잘 수 있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전도사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거래하던 물건들도

엎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후에 사람들의 비난을 혼자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라고 했을 텐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실 수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실 수 있다고 믿으셨기에, 그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가장 특별했던 시간을 꼽자면 공과 시간이었습니다. 책으로만 공과를 할 때보다 도시락 만들기 활동과 함께 하니 훨씬 재미있었고, 말씀 시간만큼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 재료 스티커를 주실 때 도시락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시간마다 스티커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시락에 필요한 재료는 채우고 어울리지 않는 재료는 빼는 활동도 무척 재미있어서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락 만들기처럼, 예배에 어울리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야겠지?’라는 결심도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젤리처럼, 달콤한 공과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여름성경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뷔페와 풀장에서 물놀이는 초등부 공동체의 즐거움이었고, 여름성경학교에서 만난 예수님은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



## 소년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해요



### 5학년 육세민

매년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다녀와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올해의 주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쓸 쓸하거나 힘들어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린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우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 가끔은 핸드폰이 되

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성경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되기도 하는 거 같았어요.

뭐니 뭐니 해도 여름성경학교의 꿀 재미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없었다면 물놀이도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이고 맛난 간식도 그냥 음식이 되었을 거예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도와주시러 오신 선생님들도 기억에 남아요. 저도 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소년부에서 친구가 없는 친구들을 더 잘 챙겨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리고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 예배를 드릴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싶어요! ☆



## 제28기 등불학교

## 하늘의 인격으로 세상에 대답하는 어린이 (잠 8:30-31)

9월 21일 ~ 11월 23일 매 주일 오후 3시 (10월 5일, 11월 9일 휴강)

대상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부모 설명회  
9월 6일(토)  
오전 11시

설명회 장소  
소년부실(열린빌딩2층)





## 캄보디아 후기

## 이삭의 마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중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익숙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항도 도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된 숫양을 보여주셨고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렸을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웃리치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매일 저녁 9시에 드렸던 40일 특별저녁기도였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선교팀 중 가장 다양한 세대(5살부터 초중등생, 청년, 장년)가 모인 우리 팀을 서로 단단히 묶어주고 연합하게 했던 원동력은 바로 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로 세워진 사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게 된 캄보디아 캄퐁스푸 지역은 처음 동역을 하게 된 곳입니다.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캄보디아의 외진 시골지역이었고 선교사님께서도 처음 시도해 보는 개척사역이었습니다. 현지의 각종 시설, 집기, 인원배치, 동선부터 현지 사람들의 성향, 기호 등 사역이 짜이고 세분될수록 파악해야 할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120명의 아이를 위한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75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축호전도, 그리고 200명 분량의 마을 축제 식사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각자 역할을 나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듯했습니다. 팀장으로 섬겼던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각 세대와 팀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힘을 많이 쏟아야 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3일간 사역하게 될 여호수아센터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정기

예배나 모임이 없는 장소였기에 거미줄, 각종 오물, 먼지 제거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쓸고 닦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미리 광고와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거무스름한 얼굴의 아이들이 맑은 눈으로 해맑게 달려왔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은 누구보다 티 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이 파이프를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직 어색하게 “수어쓰다이(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저희 팀원들에게 포옹도 합니다. 센터에서는 성경학교가 진행되었고, 아이들이 사는 가정집이 있는 마을로 축호전도팀이 출발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고 에어컨도 없었지만, 어느 한 사람 불편한 기색 없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유창한 크메어로 안부도 묻고 저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미 마을 곳곳을 잘 아시고 어느 정도 인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간 복음팔찌와 짧은 대본으로 창조, 타락, 구속의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물 어물 현지어로 전했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의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께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전략적으로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박진용 장년4교구  
trecepark@naver.com



마음 문이 열려 있을 줄 몰랐다면 하루빨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와 보니 어린이 사역을 담당했던 청년 팀도 매우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진행하느라 지쳐있었지만, 영혼만큼은 생동감 있고 아이들 한명 한명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3일간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방문했던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2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석하여 바비큐와 유부초밥, 떡볶이, 소떡소떡, 김치 볶음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포장까지 해가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 사역 일정 내내 습하고 더웠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한 번 왔어도 되는 비였지만 야외 테이블도 있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비가 금세 그쳤고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으로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짧은 지면에 담기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라고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말했습니다. 스승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의 사도들도 순교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이삭처럼, 사도들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당장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명 감당을 위해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시간, 나의 말, 불편함 등을 끊임없이 죽여야 했던 모든 팀원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막막했던 개척사역 가운데 이삭과 같이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캄퐁스푸 지역에 예배가 시작되고 국내 정기 기도모임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면 ‘단기선교’라는 말은 부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하니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지속적인 중보와 현지 사역을 통해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 태국NK 후기

## 니스웨를 향한 공흔, 내 마음속에



김혜정 장년5교구  
thecrab1@naver.com



☆ 하염없이 부르시고 어르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반응이 느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았다. 그 힘이 강해 그러저럭 받아들이며 타협하며 살던 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태국에 함께 가요.” 집사님과 권사님의 메시지가 며칠 간격으로 왔고, 그 부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거의 바로 “네”라고 대답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걸린 듯 보였겠지만, 나에게겐 즉각적인 응답이었다.)

비행기 예약으로 인해 7월 아웃리치를 위해 3월에 대답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넉 달 가까운 시간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매일 엄마의 상태를 살피며 마음을 졸였고, 부모님이 겪을 심리적 어려움에 근심하며 피 말라감을 느꼈다. 하지만 엄마의 쓰러짐과 일주일여 간의 입원 동안, 나

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엄마를 돌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속에 평강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평강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거의 전부였음을 고백한다.

우리 팀은 미션홈 지체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팀원 수에 맞춰 세 명의 지체와 18개월 된 아기를 보내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냉랭하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헌신을 사 용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NK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평생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그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는 모습에 놀랐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경험은 잊을 수 없다. 니스웨를 향한 하나님의 공흔을 생각하며, 나도 공흔히 여길 마음과 자비를 베풀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지체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생활했다. 그들의 고된 삶을 듣고 위로했으며, 나의 이야기도 나눴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다. 이번 방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교제한 지체들이 앞으로 겪을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다짐한다.

사역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울고 웃었던 팀원들, 기도로 동행해 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라오스 후기

## 1.5%의 믿음, 큰 희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일과 소년부 교사로 봉사하며 소년부 여성성경학교와 해외아웃리치도 같이 준비하는 기간은 힘들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찬양 인도, 무연극, 보조 교사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찬양 인도였다.

라오스 싸이쌍왕교회에서 외국인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획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싸이쌍왕교회에서 거절해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는데, 갑자기 출국 일주일 전쯤에 다시 찬양 인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 그런지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언어의 장벽은 통역으로 해결했고 라오스어로 찬양을 준비하고 라오스 교사분들과 즐겁게 찬양을 했다. 앞에 나와서 약 130명이 넘는 라오스 교사분들을 보니 큰 은혜가 있었다. 이들의 눈동자가 너무 맑고 순수하고 표정은 너무 밝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라오스를 지켜보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을 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또한 불교와 토속신앙 비율은 97%이고 기독교 비율은 1.5%다. 그렇기에 모든 사

회 체계나 문화가 불교 쪽에 가깝다. 불교가 아니면 결혼과 장례 등 다양한 일들 가운데 제약이 존재한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한 예로 어떤 스님은 먹고살기 위해서, 또 공부가 하고 싶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생계 수단으로 스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곳이 라오스이다.

이런 곳에서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어린 교사들이 더 어린 학생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을 하고자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여 배운다.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라오스 교사들에게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이들의 눈빛이 열정적으로 바뀌고 본인들에게 이런 도구와 자료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 뜨거운 열정에 감탄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이 점점 퍼져서 라오스 어린이들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는 상상을 했다. 1.5%의 기독교 비율이 50%를 넘어 70%가 되는 그런 상상을 했다. 하지만 시설과 환경은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열악했다. 화장실은 악취가 가득하고 수로가 열악해서 냄새가 올라오며 거리의 동물들은 갈비뼈가 보일 만큼 야위어 있었다. 한국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직접 와서 체험하고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울지 확신이 생긴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한다.

한 집사님께서 아웃리치에 남자 어린이 가방을 하나 가져 오셨다. 사역이 거의 다 끝나 갈 때까지 그 가방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21KM 마을’에 방문했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 남자 어린이가 있었다. 그 어린이가 마지막으로 그 가방을 받았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마치 이 어린이에게 가방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선교는 뭔가요?” 선교사님은 대답하셨다. “선교란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선교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많은 라오스 사람에게 집중하려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섬기고 작게 도우려고 하니 마음이 편해지며 오히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기에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다. ☆

캄보디아(청년) 후기

## 두려움 끝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해외아웃리치는 제게 가장 큰 벽과도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국내아웃리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웠던 제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해외로 나가 문화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벽을 넘게 된 계기는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작년부터 내년 해외아웃리치는 같이 가자던 친구의 말로 시작되어 올해도 변함없이 권유하는 친구의 말에 의해 기도하다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걱정과 두려움이었으나, 이어지는 준비 만남과 선교사님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조금씩 그 땅에서 이뤄질 시간들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준비하는 팀원들에 대한 마음도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순간에도, 육체가 지치는 연습의 시간이 이어짐에도, 함께였기에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은 캄보디아에 도착함과 동시에 사라지고, 다음날 있을 사역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섬김을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마주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기쁨만이 가득한 섬김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전도를 나갔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현지 사역자분

과 선교사님의 열정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인사하시는 모습,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들고 온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시는 모습... 그 짧은 순간에 녹아있던 간절함과 진심이,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그 자리에 함께한 저에게까지 더욱 실려지는 마음에, 할 수 있는 거라곤 인사와 배워서 외운 딱 한 문장뿐이었지만 그들에게 닿길 바라며 계속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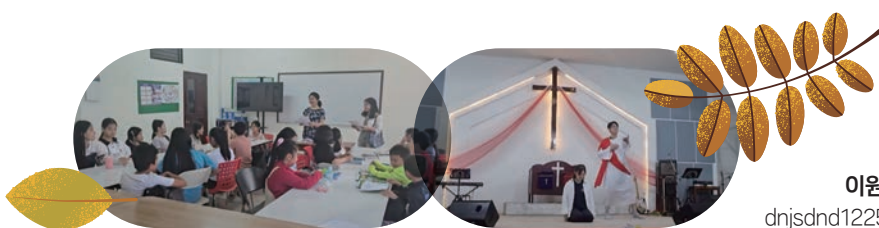
처음 마을로 발을 내디딜 때는 걱정이 되었으나 돌아다닐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언어를 사역자분과 선교사님을 통해 채워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크양교회와 솔로몬센터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해 주셨던 영혼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 간제가 오히려 그 영혼들을 통해 넘치는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이 다르지만 눈빛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우리에게 “크롬 쓰럴란 네악(나는 너를 사랑한다)”이라고 말해주던 아이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선물해 주던 아이들, 만든 모루인형을 선물로 주던 아이들, 헤어지던 순간에 꼭 안아

주며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하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가득하다 못해 넘치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어 지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일주일일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캄보디아에 가 하루하루를 보내며 보니 일주일의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날이 줄어갈수록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웠고, 이 아이들을 두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두 눈으로 보았기에 우리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그 땅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아쉬움을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미소와 맞잡았던 손의 온기 그 무엇하나 빠짐없이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모든 기억이 우리 안에 오래도록 남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의 영혼들이 계속하여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주셔서 사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감을 마칩니다. ☆



이원웅 장년3교구  
dnjsdnd1225@naver.com



고단비 청년부  
ko021209@gmail.com





청소년부2국 후기

# 사랑이 물결처럼 밀려온 시간



왕유진 중학교 3학년



★ 올 7월은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처음 가보는 수련회라 떨리기도 했지만, 무척 기대되었다. 2박 3일간 진행된 여름수련회는 충신대학교 박재은 교수님의 설교로 시작되었다. 첫째 날 설교에서 교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셨다. 그 만남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고, 우리가 그 만남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네 가지 만남 중 첫 번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건 '설교를 통한 만남'이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전에 김태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둘째 날에는 여름수련회의 꽃인 물놀이와 저녁 집회가 있었다. 물놀이는 아직 어색했던 조원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고, 덕분에 우리 조 분위기가 훨씬 편하고 친근하게 바뀌었다. 그날 저녁 집회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는지 찬양 시간의 열기는 강당 밖의 폭염보다 더 뜨거웠다. 모두가 무대로 올라가 신나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특히 CCM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모두 기쁨 춤을 추게 되리"라는 가사

가 떠오르며,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저절로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설교 시간에도 그 열기는 식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날 만큼 집중이 대단했고, 첫날에 줄던 조 친구들과조차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은혜로운 시간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간식과 식사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족해지는 느낌이었다. (교회 예산이 괜찮을까 살짝(?) 걱정될 정도였다.)

우리 조의 선생님('안지호 쌤')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도 깊이 남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이 있으시기에,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낙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혀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공주 유스호스텔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수거했을 때는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덕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훨씬 좋았다고 느꼈다.

수련회에 가기 전, 나는 완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완

전함을 찾으려다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족을 위한 '갑옷'을 입고, 가식적인 대화와 허구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였는지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컸고,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는 작년 겨울에 회심했다고 느꼈다. 물론 진짜 회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 친구를 만났는데, 이미 회심하여 기쁨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다. 그들을 보며 마음이 무척 아팠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겠다. 성경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읽어낸 책 같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잔잔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그 잔잔함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흔들리는 우리를 아시고, 그런 우리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는 '진짜 기쁨'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결처럼 밀려올 때 느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

## 교회 소식



### 남·여전도회 사전모임

7월 27일(주일) 오후 4시에 남·여전도회 사전모임이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장년교구 구역장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 영·유아부 가정지혜교육

주제: '눈, 귀, 입, 손과 발'의 지혜

기간: 9월 한 달(4주)

방법: 가정지혜교육 활동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진행

### 양육교사훈련학교

일시: 8월30일~9월27일, 매주 토요일 오후1~4시  
(9월13일 휴강)

장소: 교육실4(별관2층)

### 제1기 예비부모학교

일시: 9월, 매주 토요일 오전10시30분~12시30분 (9월13일 휴강)

장소: 교육실3(별관2층)

대상: 임신 중 예비 부모 및 임신 준비 부부

문의: 윤형진 안수집사

### 제2기 결혼예비학교

일시: 9월, 매주 주일 오후6~8시

대상: 결혼 준비 중 커플 및 결혼 1년 차 신혼부부

장소: 교육실3(별관2층)

문의: 윤형진 안수집사

### 전교인 이단세미나

일시: 9월7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예배실(본관3층)

대상: 제직, 구역장 및 관심 있는 교인 누구나

강사: 정윤석 목사(기독교포털뉴스 대표기자)

### 제15기 구역개관학교

일시: 9월20일~12월6일, 매주 토요일 오후5~7시  
(10월4일, 10월11일 휴강)

강사: 유선명 교수(백석대 구역학 교수)

문의: 허신구 안수집사

### 제54기 토요교리반

일시: 9월20일~12월6일, 매주 토요일 오후7~9시  
(10월4일 휴강)

강사: 원종천 교수(아신대 명예교수)

문의: 김재현 안수집사

### 제1회 열린신학세미나

주제: 마태복음, '임마누엘과 하늘'의 관계로 다시 읽다  
(부제: 마태복음의 이론과 설교의 실제)

일시: 9월29일(월) 오전10시~오후6시

장소: 예배실(본관3층)

강사: 강대훈 교수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신학 조교수)

### 주요사역

1일(월) 서초시찰회

3일(수) RTS 가을노회

6일(토) 온세대아침예배

6.20,27일(토) 예비부모학교

7일(주일) 이단 세미나/새가족환영축제

7일(주일)~28일(주일) 결혼예비학교/가정지혜교육

12일(금)~13일(토) 구역장 수련회

20일(토)~12월6일(토) 구역개관학교(10주)

20일(토)~12월6일(토) 교리반(11주)

20일(토) 부모기도회

21일(주일)~11월23일(주일) 등불학교(8주)

22일(월) 도시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초청세미나

28일(주일) 정기당회

29일(월) 제1회 열린신학세미나

30일(화) 고신대 장학금 전달식

### 새가족

#### ▶▶ 장년

윤석민(90) 김형운(46)

정환일(89) 김윤경(70)

김지선(92) 심재일(54)

김자영(74) 김인자(58)

안형진(72) 김충만(88)

이인혁(81) 나수빈(95)

장은영(75) 지성은(85)

최형경(69) 이수명(80)

조현일(64) 김원호(68)

이지연(68) 박애영(72)

#### ▶▶ 청년

유선아(02)

정선후(04)

성의창(03)

박준형(00)

김명재(98)

박수연(96)

최준호(98)

권용우(92)

이미진(81)

조지혜(83)

### 추천도서

## 여리고 가는 길

팀 켈러 (저) · 이지혜 (역)/비아토르



...(팀 켈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인 개개인 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1부와 2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부에서는 자비 사역의 성경적 근거와 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볼 것인지, 이 사역을 위한 우리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토대와 기준들을 설명하고 가르친다.

2부에서는 이 사역의 실천을 위한 지침들을 첫 단계부터 차례차례 설명해 나간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의 통계와 사례들이지만, 노숙 가정의 증가, 노인 빈곤층 증가, 한 부모 가정 증가 등 급변하는 현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한 후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온전히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다.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 조건을 달 것인가? 어느 때까지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교회 전체적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등등 자비 사역에 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출판사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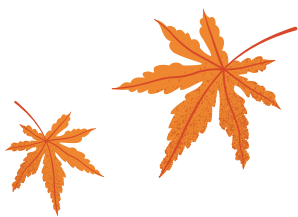
청소년부3국 후기

# 수련회가 끝난 후, 일상 속 신앙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낮설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태도부터 삶의 방향까지 낮설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솔하게 행동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력무력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은혜로웠



고한나 고등학교 2학년



습니다.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도 물론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청소년부 선생님들, 임원팀, 찬양팀, 청년부 스태프들, 그리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재은 목사님까지, 늘 청소년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많은 친구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지나쳤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와 온가족아침예배에도 나가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수련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청소년부1국 후기

# 배를 내려놓고, ‘낮선 의’로



김다인 중학교 2학년



겨울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어느새 거의 반년. 반년 동안 제 삶을 돌아켜보면, 주님과 너무도 떨어져 있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다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생각에 기대하며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여러 활동이 있었고, 모든 시간이 의미 있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좋았던 건, 저녁 집회 설교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하나님과의 4가지 만남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중 제 마음 가운데 박혔던 것은, ‘헌신의 만남’이었습니다.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전부였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저도 ‘아, 이것만큼은...!’ 싶은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삶의 ‘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딱히 성직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그래서 첫째 날 기도 시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놓지 못하는 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집회 설교는 우리의 영혼의 파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부적인 힘으로는 빛을 갈 수 없어서, 외부로부터 구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린 자랑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설교를 통해 저는, 제 안에 있던 놓지 못하는 배가 저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 행위가 저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착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세웠던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 삶

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부름 받고, 보냄 받다’였던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익숙한 죄를 좋아하고 낮선 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동참하라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선 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이 세상의 낮선 의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에 전도할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점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삶을 사용해 주셔서, 제가 부르신 자리에서 ‘낮선 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지금. 또다시 익숙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보며, 죄의 본성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스스로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제 부족한 삶을 통해 역사하셔서 낮선 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

곰곰이 생각

## 먼저 다른 문을 닫자!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성경의 하나님과



하루의 문을 열고

하루의 문을 닫고 싶다면,

먼저 다른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른 문을 닫으십시오!”



그래!  
이거 보다가 잠들 수는 없지!

한 사람이 두 집에서 잠에 들고,  
두 집에서 깨어날 수 없는 법이지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7절)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2절





행복한 사람

## 가위 끝에서 주님께로

김도경 장년6교구  
6582www@naver.com



2024년 이른 봄, 토요일 저녁 마지막 예약 손님이 미용실에 방문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그 손님은 열린교회 성도가 되어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자마자 상기된 얼굴로 교회에서 받은 은혜의 간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분의 방문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고 다음 날 바로 열린교회로 향했습니다. 20대에 미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세 번의 대학 입시 실패 후 어머니의 끈질긴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썸이 많았던 저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미용을 선택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미용실에는 교회를 다니는 동료가 있었는데, 밝고 예의 바른 태도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은 제 마음 속에 존경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훗날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40대 초반, 친정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 믿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지 ‘경험’으로만 알고 있던 주님을 너무 쉽게 잊게 했고, 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일로 채우려 했고, 미용실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무리한 겹 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가 집 값이 폭락했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서원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남은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저 자신도 놀랐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 자신을 아신다는 사실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쁨은 이튿날 현실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이후 저는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익숙했던 저의 삶의 동선을 내려놓고,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들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가게를 개업하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십일조를 드리면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나의 헌금이 쓰이길 원하며 그런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은 소망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열린교회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으면서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 예배가 아닌 성장반의 자리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교우들과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가진 기술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주일 말씀과 교리반을 병행하면서, 늘 가장자리에 익숙했던 삶에서 점점 안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인사는 친정엄마의 다정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요기도회 때에 매주 다른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 말씀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한주 한복판에 주일말씀의 은혜를 이어가며 주중의 고민에 답이 되었으며, 금요기도회의 신나는 찬양의 울림은 마음 깊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믿음을 시험하는 마음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먼 길을 돌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내 과거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잔피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은 내 엉망진창의 삶에 위로를 주었고, 불안한 삶에 맞서는 다윗의 시는 삶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률한 사역에 잠시 기가 죽었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그의 고민은 삶과 신앙에 시름한 인생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몸과 마음은 일치되지 않았고, 일에 대한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한 미용은 곧 나 자신이었습니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지나친 열심은 내 몸에 무리를 주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일’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때로는 내가 미래를 책임지려는 집착의 형태로,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드러났지만, 결국 그 뿌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나의 불신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바라봄 성경읽기’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기억하고자 여러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과는 달리 나는 여전히 애굽의 무거운 강제노동과도 같은 미용실의 삶 속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여 행동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나의 자유한 선택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첫 순서에서 들려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듯 들렸습니다.

이렇게 열린교회에서 만난 주님은 나의 마음과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소원했던 남편이 측은하게 느껴졌고, 시어머니의 좁아진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조차 조금의 양보와 용서도 쉽지 않았던 나를 돌아보게 했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눈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열린교회 지체들과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늘 가위 끝에 집중하던 민감한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며, 나의 손끝에까지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사형틀 앞에서조차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삶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날을 꿈꿔봅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담임목사  | 김성진                                                                   |
| 시무장로  |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br>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 은퇴장로  |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 부목사   |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br>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br>정호석 최은광 |
| 협동목사  | 정창욱                                                                   |
| 강도사   |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 전도사   |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br>김진하 이찬 이순이                             |
| 교육전도사 | 박승훈 권세원 이혜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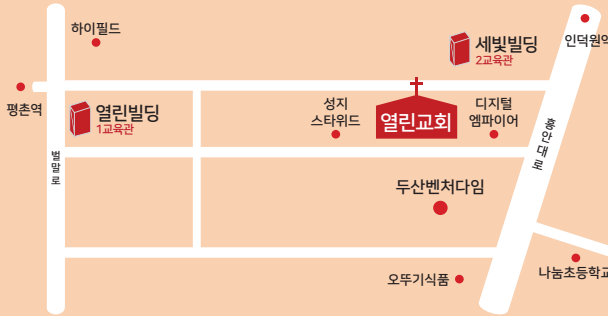
###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 예배시간 안내

|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1부       |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
|            | 2부       |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
|            | 3부       |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
|            | 4부       |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
| 주중예배       | 수요예배     |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
|            | 목요일장인예배  |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
| 기도회        | 새벽기도회    |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
|            | 금요기도회    |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
|            | 화요전도기도회  |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
|            | 수요섬김기도회  |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
|            | 토요강단기도회  |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
|            |          |                           |
| 교회학교       | 청소년부     |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1층 교육실1) |
|            | 소년부      |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3) |
|            | 초등부      |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2) |
|            | 유년부      |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4층 교육실3) |
|            | 유치부      |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3층 교육실2) |
|            | 유아부      |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2층 교육실1) |
|            | 영아부      |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
|            | 사랑부(취학부) |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
| 외국인        | 사랑부(청년부) |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
|            | 외국인팀     | 정오12시(세빛빌딩 5층 외국인실)       |
| 백행목        | 봄·가을학기   |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
| 금요<br>테마학교 | 미취학부     |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
|            | 취학부      |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듯, 당신의 지친 마음에도 예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